

少陰人 藿亂 病證에 대한 考察 (『東武遺稿』, 『東醫壽世保元』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을 중심으로)

석재화 · 함통일 · 황민우 · 고병희 · 송일병 · 이수경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study on 'The Discourse on the Soeumin Gwakran(藿亂) Disease' of Dongmu Lee Je-Ma

Soek Jae-Hwa, Ham Tong-Il, Hwang Min-Woo, Koh Byung-Hee, Song Il-Byung, Lee Soo-K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1. Objectives

This study is to find changes of Dongmu Lee Je-Ma's conception about Soeumin Gwakran(藿亂) Disease through comparing with his writings such as 『DongMuYooGo』, 『SooSe Bowon Sasang Chobonguen』, 『SooSe Bowon Gabobon』 『SooSe Bowon Sinchubon』.

2. Methods

We compared conceptions, symptom, mechanism and treatment of Soeumin Gwakran(藿亂) Disease in 『DongMuYooGo』, 『SooSe Bowon Sasang Chobonguen』, 『SooSe Bowon Gabobon』 and 『SooSe Bowon Sinchubon』.

3. Results and Conclusions

(1) In 『DongMuYooGo』 and 『SooSe Bowon Sasang Chobonguen』 Dongmu Lee Je-Ma's conception about soeumin Gwakran(藿亂) Disease is yet based on previous traditional medicine based on 『DongEuiBoGam』.

(2) In 『SooSe Bowon Gabobon』, Seupgwakran(濕藿亂) is described within the category of Taeum syndrom(太陰病), and Geongwakran(乾藿亂) is described within the category of Soeum syndrom(少陰病). But conception about Soeumin Gwakran(藿亂) Disease is not yet definitely settled.

(3) In 『SooSe Bowon Sinchubon』, Geongwakran(乾藿亂) is described within a severe case of Taeum syndrom(太陰病). Dongmu Lee Je-Ma's conception about Soeumin Gwakran(藿亂) Disease is changed.

Key Words : Gwakran, Soeumin, vomiting, diarrhea

I. 序 論

藿亂은 『東醫寶鑑』에서 乾藿亂과 濕藿亂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濕藿亂은 위로는 吐 하고 아래로는 泄瀉하는 것으로 藿亂의 일반적인 경우이고, 乾藿亂이라는 것은 吐 하지도 않고 泄瀉도 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嘔吐와 泄瀉의 증

상으로 보아 급성위장염이나, 전염성 질환인 콜레라라고 할 수 있겠다.

藿亂은 여름과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며, 원인은 食傷, 外感, 七情 등으로 胃氣가 傷하여 발생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治法으로 順氣, 治濕, 降火 등을 제시하고 處方으로 藿香正氣散, 理中湯, 薑鹽湯 등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少陰人의 藿亂은 『東武遺稿』 및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에서부터 辛丑本에 이르기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東武 李濟馬의 藿亂에 대한 病證認識과 治療에 대한 認識은 점차 변화하였다.

• 접수일 2005년 6월 24일; 승인일 2005년 8월 12일
• 교신저자 : 이수경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82-2-958-9233 Fax: +82-2-958-9234
E-mail: sookjung@khmc.or.kr

이 글에서는 少陰人 藿亂에 대한 病證에 관한 認識과 治療의 變化를 중심으로 東武 李濟馬의 認識體系의 變化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東武 李濟馬의 著書에 나타난 藿亂

1) 『東武遺稿』에 나타난 藿亂

『東武遺稿』 『病證各論』에서 濕藿亂, 乾藿亂을 모두 제시하며, 藿亂에 대한 단편적인 概念과 藥方을 제시하였다.

1. 關格, 乾藿亂, 濕藿亂을 함께 제시하면서 如意丹, 溫白丸, 備急丸, 巴豆 제시한다¹⁾. 여기서의 如意丹, 溫白丸, 備急丸은 『東醫壽世保元』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 등장한다. 『東醫寶鑑』에서 如意丹은 「溫疫門」에서 기술되고, 溫白丸은 「積聚門」, 備急丸은 「救急門」에 각각 기술된다. 如意丹에 檳榔과 當歸를 추가하면 溫白丸이 된다. 이 세 처방의 공통점은 모두 巴豆霜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며, 巴豆는 『東武遺稿』에서 辛丑本에 이르기까지 藿亂에 사용하고 있다.

2. 濕藿亂의 原因을 食傷으로 제시하였다.

『東武遺稿』의 少陰人 濕藿亂에 대한 초기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證狀과 原因, 豫候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食傷으로 인한 濕藿亂을 제시하는데, 여름철에 잘 발생하며 處方으로는 藿香正氣散 加 香薷, 益母草 3錢을 제시하며, 저절로 토하면 위험을 면하고, 人中에서 땀이 나면 위험을 완전히 면한다고 하여, 東武 李濟馬선생의 食傷으로 인한 濕藿亂 치험례는 『東武遺稿』가 저작되었을 쯤의 초기에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²⁾.

『東武遺稿』 『病證各論』에서는 藿香正氣散을 傷寒病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藿香正氣散은 『東醫寶鑑』 「寒門·傷寒陰證」과 「藿亂門」에 언급되어진

處方인데, 傷寒陰證과 濕藿亂은 吐하며 泄瀉하는 증상을 나타낸다. 濕藿亂에 藿香正氣散, 香薷, 益母草를 사용하는 것은 少陰人 藿亂의 처방에 대한 東武 李濟馬의 초기인식은 기존 韓醫學의 處方 개념을 비교적 그대로 따랐다고 할 수 있다.

3. 乾藿亂은 中伏, 末伏의 더운 여름에 간간히 발생하며, 證狀으로 간혹 泄瀉하고 嘔吐 증상은 없으며, 飲食은 如常하나 그 맛을 모르고 배가 딱딱하며 부어오르고, 面色이 靑點이 생긴다고 제시하고 面色이 靑點이 발생하면 위험한 證狀이라고 제시한다³⁾.

乾藿亂의 原因으로 七情(思慮), 酒色, 飲食(積傷)으로 脾가 상하였거나, 心氣가 고르지 않거나, 六氣 등을 제시한다. 處方으로는 巴豆가 좋은 약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⁴⁾, 『東武遺稿』 關格 條文에 少陰人 關格에 역시 巴豆를 제시한다⁵⁾.

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 나타난 藿亂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乾藿亂과 濕藿亂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東醫寶鑑』 식으로 각 證狀을 위주로 主要 證狀이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藥方篇에 단편적으로 處方을 제시하고 있다. 泄瀉를 主證으로 하는 濕藿亂에는 香蘇散에 香薷, 白扁豆를 加味한 二香散⁶⁾을 사용하며, 藿亂의 예후로 트림을 자주하면 藿亂이 낫는 경우⁷⁾라고 제시하고 있다. 乾藿亂에 『東武遺稿』와 같이 巴豆를 제시⁸⁾하며, 이것은 辛丑本까지 이어진다. 二香散은 『東醫寶鑑』 「暑門」 暑風條文에 언급되어진 처방으로 吐하고 泄瀉하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서술되어 있다⁹⁾. 二香散의 原方인 香蘇散은 『東醫寶鑑』 傷寒表證과 傷寒陽證에 등장하여 外感에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東武遺稿 海東』 『病證各論』: “乾藿亂 則中伏末伏間常有之 有時泄瀉而無吐 飲食如常而無味 腹中硬脹而面色靑點者 此危症也”

4) 『東武遺稿 海東』 『病證各論』: “乾藿亂 則巴豆 上藥也”

5) 『東武遺稿 海東』 『關格』: “少陰人 關格 巴豆”

6)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卷之三 第二統』: “香蘇散 治四時運氣 加 香薷 白扁豆 名曰 二香散 治泄瀉藿亂”

7)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卷之二 第五統』: “少陰人 平時屢噎者病也 藿亂時屢噎者 病解也”

8)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卷之二 第五統』: “少陰人 運氣病七日內 人中不汗則 桂麥不可不用 又少陰人 乾藿亂 面色帶靑而上下不通則 巴豆不可不用”

9) 許浚.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1999:1019.

1) 『東武遺稿 海東』 『病證各論』: “關格乾藿亂濕藿亂 緊藥則如意丹溫白丸備急丸可也 症輕則生巴豆一介可也 症重則二介也”

2) 『東武遺稿 海東』 『病證各論』: “傷食濕藿亂 則吐瀉而自發吐 則免危也 人中發汗 則十全免危也 藿香正氣散 加香薷益母草三錢調理也”

Table 1. A Classification of the Soeumin Interior Disease Mentioned in 『Dongyi Suse Bowon』 written in 1894(GaboBon)

	太陰病	少陰病
病理機轉	少陰人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	少陰人內守胸膈胃中之胃氣虛弱
證 狀	下利黃水, 下利清穀 口不燥心不煩	下利清水 口燥心煩
治 法	助溫煖	制陰寒
病 證	張仲景 太陰病 自利腹痛, 瀉心湯證, 傷寒發黃, 水結胸, 寒實結胸, 黃疸, 陰毒	張仲景 少陰病, 臟厥, 陰盛格陽, 下利清水, 乾霍亂關格病

『東武遺稿』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모두 香蘇散, 藿香正氣散을 外感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濕霍亂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 『東武遺稿』에선 藿香正氣散加味方,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香蘇散加味方(二香散)을 각각 제시하였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체질인식을 바탕으로 질병별로 處方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霍亂病證에 관해서도 기존 韓醫學의 개념이 여전히 관찰된다.

이후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갈수록 體質病證을 다루는 포괄적인 病證운용을 하는 處方들로 점차 바뀌게 된다.

3)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 나타난 霍亂

甲午本에서 少陰人의 病證을 인식할 때, 腹背表裏와 保命之主를 중심으로 한 表裏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病證이 表裏 標本에 해당부위 중 어디에서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病證을 구분하였다¹⁰⁾. 少陰人 表病을 太陽病과 陽明病으로, 裏病을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구분한 후에, 太陽病을 表之表病, 陽明病을 表之裏病, 太陰病을 裏之表病, 少陰病을 裏之裏病으로 각각 제시하였다.

裏病에서 張仲景의 太陰證 自利腹痛과 心下痞를 主症으로 하는 瀉心湯證, 傷寒發黃, 水結胸 및 寒實結胸 등을 하나의 病證(太陰病)으로 요약하여 설명하였고, 少陰病을 厥陰症, 下利清水證, 陰盛格陽證, 乾霍亂關格病을 그 레로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즉 甲午本에서는 乾霍亂關格病은 下利清水하는 證狀을 바탕으로 하여 內觸胃病(裏病)에 속하며, 裏病 중에는 胃中之胃氣가 冷氣에 內寢하여 발

생하는 少陰病¹¹⁾(裏之裏病)의 범주에서 서술되고 있다.

甲午本에서는 太陰病과 少陰病을 다음과 같이 病理와 證狀, 治法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²⁾.

甲午本에서 乾霍亂關格病은 少陰病 뒤부분에서 3차례의 치험례를 통해 증상, 원인, 약방을 제시하고 있으며, 『東武遺稿』에서 草本卷까지 제시되었던 濕霍亂의 病證 서술을 엮었다.

濕霍亂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霍亂 중 濕霍亂이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저술 때부터는 少陰人 裏病 중에 太陰病으로 흡수되어 太陰病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濕霍亂의 증상이 上吐下瀉이고, 太陰病의 주요 증상이 吐瀉라는 점¹³⁾ 둘째, 『東武遺稿』에서 기술된 濕霍亂의 原因은 食傷¹⁴⁾인데, 太陰病의 주요원인 중 하나도 食滯이란 점¹⁵⁾ 셋째, 『東武遺稿』에서 濕霍亂 處方이 藿香正氣散이고,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辛丑本에서 太陰病의 處方 중 藿香正氣散이 있다는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乾霍亂關格之病은 甲午本에서 少陰病의 범주로 제시되고 있는데, 辛丑本에 오면 그 범주가 바뀌게

10)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甲午本과 辛丑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소양인 病證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62-73.

11)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少陰人內觸胃病論」: “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陰人內守胸膈胃中之胃氣虛弱 冷氣內侵 下利不止之證也”
 12)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少陰人內觸胃病論」4, 50, 56쪽
 13)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少陰人內觸胃病論」: “張仲景曰 太陰之證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14) 『東武遺稿 海東』「病證各論」: “傷食濕霍亂 則吐瀉而自發吐 則免危也 人中發汗 則十全免危也 藿香正氣散 加香薷益母草三錢調理也”
 15)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少陰人內觸胃病論」: “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陰人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 食物塞滯而一二三日內 新氣添積漸得快健則 終能變革消化 下利之證也”

Table 2. A Classification of the Soemin Interior Disease Mentioned in 『Dongyi Suse Bowon』 published in 1901(SinchukBon)

	太陰病	少陰病
證狀	下利清穀 口中和 裏病 表不病	下利清水 口中不和 表裏俱病
病理構造	胃中溫氣猶勝大腸寒氣而下降也. 太陰病泄瀉 大腸之泄瀉 溫氣逐冷氣之下利	大腸寒氣必勝胃中溫氣而上升也 少陰病泄瀉 胃中之泄瀉 冷氣逼溫氣之下利也.
治法	溫胃而降陰	健脾而降陰
病證	張仲景 太陰病 清穀下利 痞滿 黃疸 浮腫 陰毒 乾薑亂關格病	張仲景 少陰病 下利清穀 陰盛格陽 臟厥

된다⁶⁾.

甲午本에서 乾薑亂關格之病을 少陰病에 범주로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갑오권에서의 편제상 제일 뒤부분에 少陰病 조문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둘째, 乾薑亂關格之病은 下利清水와 但欲寐 등의 증상이 少陰病과 관련이 깊다. 셋째, 汗, 土, 下 후에 병세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넷째, 乾薑亂關格之病에 사용되는 處方 중 桂附薑陳理中湯은 少陰人 少陰病에 사용하는 官桂附子理中湯에 藿香, 砂仁을 가한 加味方¹⁷⁾이라는 점이다. 즉 藿亂을 중심으로 요약해보면 甲午本에서 濕藿亂은 太陰病의 범주에서, 乾薑亂關格病은 少陰病의 범주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東武 李濟馬는 3차례의 임상례를 기본으로 藿亂關格病의 病理와 原因을 밝히고, 病의 호전되는 예 후도 제시하였다. 사용 약방에 있어서는 각각 巴豆如意丹과 好熟冷, 桂附薑陳理中湯 培加 人參 官桂 各二錢 或一錢, 獨參湯 加 生薑 二錢 陳皮 砂仁 各一錢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乾薑亂關格病의 病理構造와 原因과 처방에 대해 考察해본다.

乾薑亂關格病의 原因을 食滯로 제시하고 있으며, 巴豆는 『東武遺稿』에서부터 제시된 처방으로 巴豆如意丹은 巴豆가 積滯을 없애는 功能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桂附薑陳理中湯과 獨參湯加味方의 사용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 桂附薑陳理中湯을 乾薑亂關格病에서 下利清水와 全腹浮腫을 겸하

였을 때 사용하는 處方으로 下利清水가 下利清穀으로 바뀌면서 全腹浮腫이 풀린다고 서술하고 있다¹⁸⁾. 그러나 桂附薑陳理中湯의 용례를 보면 甲午本에서는 太陰病, 少陰病에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太陰病의 結胸 및 黃疸에서 太陰病 處方과 함께 桂附薑陳理中湯을 제시하였고¹⁹⁾, 結胸보다 심한 太陰病의 黃疸에서 桂附薑陳理中湯과 芎歸葱蘇理中湯을 제시하였다²⁰⁾. 少陰太陰之危證에 獨參附子理中湯과 桂附薑陳理中湯을 제시하는데, 待對上 獨參附子理中湯은 少陰病, 桂附薑陳理中湯은 太陰病에 배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²¹⁾. 또한 少陰病과 少陰病 범주의 臟厥, 下利清水²²⁾에 桂附薑陳理中湯과 芎歸葱蘇理中湯을 제시하고 있다²³⁾.

이처럼 桂附薑陳理中湯은 少陰病의 處方이라 할 수도 있고, 太陰病이 심화되었을 때 사용할 수

16) 辛丑本에 와서는 直中陰經乾薑亂關格之病이 太陰證의 重證으로 소개된다.
17)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新定少陰人病應用要藥二十二方」, 참조

18)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內觸胃病論」: “其後 又有少陰人 一人 日下利數次 而仍下清水 全腹浮腫 初用桂附薑陳理中湯 倍加人參 官桂 各二錢 附子二錢 或一錢 日四服 數日後 則日三服 至十餘日 遂下利清穀 連三日三四十行 而浮腫 大減”
19)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內觸胃病論」: “今考更定 已上諸證 即少陰人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已上諸證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理中湯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 桂附薑陳理中湯”
20)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內觸胃病論」: “今考更定 已上諸證 即少陰人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又當用 芎歸葱蘇理中湯 桂附薑陳理中湯”
21)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腎胃病篇尾汎論」: “少陰太陰之危者 獨參附子理中湯 桂附薑陳理中湯 可以解之”
22) 甲午本에서 少陰人 臟厥과 下利清水는 少陰人 內觸胃病 중 少陰病에 속한다.
23)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內觸胃病論」 48, 53, 56조

있는 處方으로도 사료된다. 후에 辛丑本에 와서는 桂附藿陳理中湯과 芎歸葱蘇理中湯은 官桂附子理中湯으로 요약된다.

獨蓼湯加味方은 辛丑本 少陰人新定方에 제시된 人參陳皮湯의 母方인데, 人參陳皮湯의 처방설명에 溫胃逐冷之力이 있다고 하여 太陰證 重證에 사용되는 처방으로 서술되고 있다.

4)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 나타난 藿亂

直中陰經 乾藿亂關格病은 表病證이 없이 直中한 증세를 말하며, 四肢가 차가워지는 증상을 가진다. 辛丑本에서 少陰人 表病을 크게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구분하고, 치료 원칙을 益氣而升陽을 제시하였다. 裏病은 크게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나누고 각 치료 원칙을 ‘溫胃而降陰’, ‘健脾而降陰’으로 제시하고 處方에서는 太陰病에는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을, 少陰病에는 官桂附子理中湯을 제시하고 있다²⁴⁾. 少陰病 裏病에 있어서 甲午本이나 辛丑本이나 모두에서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크게 구별하여 병증을 보고 있다.

『東醫壽世保元』의 少陰人 부분은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개조되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지고, 條文의 편제 또한 바뀐다

甲午本에서 傷寒直中陰經 조문과 乾藿亂關格病 조문이 甲午本에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辛丑本에 오면서 두 조문이 나란히 배치되어 일련의 병증²⁵⁾으로 배치된다. 直中陰經乾藿亂關格之病에 관한 조문²⁶⁾은 위에서 설명한 甲午本의 임상례²⁷⁾를 개조없이 그대로 제시하고 있지만, 편제가 바뀌어서 裏病篇의 少陰病 뒷부분에 있던 것이 太陰病과 少陰病 사이에 위치한다. 이는 辛丑本으로 오면서 直中陰經乾藿亂關格之病에 대한 東武 李濟馬의 病證認識에 있어서 다소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甲午本까지 少陰病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제시되었던 直中陰經乾藿亂關格之病을 辛丑本에 이르러서는 太陰病의 범주(太陰病의 重證로 재해

석²⁸⁾되고 있는 것이다.

藿亂關格病 이후에 下利清水病으로 轉變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下利清水가 나타나기 전에 巴豆로 먼저 積滯痼冷을 풀었으면 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²⁹⁾. 이는 甲午本 이후 東武 李濟馬가 경험한 치험례로서, 藿亂 이후 下利清水하는 少陰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임상례이다.

결국 乾藿亂關格病의 인식이 少陰病에서 太陰病의 重證으로 변화되었고, 이런 변화는 다만 乾藿亂關格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少陰病과 太陰病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Ⅲ. 考 察

1) 『東武遺稿』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 나타난 藿亂 病證認識 考察

『東武遺稿』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모두 香蘇散, 藿香正氣散을 外感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濕藿亂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 『東武遺稿』에선 藿香正氣散加味方,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香蘇散加味方(二香散)을 각각 제시하였다.

藿香正氣散은 『東醫寶鑑』 「寒門」의 傷寒陰證와 「藿亂門」에 등장하고, 香蘇散은 「暑門」 暑風에 등장하는 처방으로 두 처방 모두 기존 한의학에서 吐瀉하는 병증에 사용하였음을 생각해 볼 때 『東武遺稿』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저술 당시에는 아직 草本卷의 처방들의 이론적 근거는 기존 의학의 內傷과 外感의 病因病機 이론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藿香正氣散은 辛丑本과 甲午本에서 不分表裏證³⁰⁾에 사용할 수 있는 處方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辛丑本에서 表病 鬱狂病과 裏病 太陰病에 모두 사용하는 處方으로 제시되고 있다. 四象草本卷에서는 처방의 내용이 주로 질병중심으

24)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甲午本과 辛丑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소양인 病證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62-73.

25)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裡寒病論」 16 조 17 조

26)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裡寒病論」 17 조

27)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卷之二』 「少陰人內關胃病論」 64 조

28) 이준희,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 49-61.

29)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陰人胃受寒裡寒病論」 36 조

30)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腎受熱表熱病論」: “龔信 醫鑑曰 傷寒 頭痛 身疼 不分表裏證 當用藿香正氣散”

로 구성되었던 것이 『東醫壽世保元』으로 가서는 體質病證을 다루는 포괄적인 病證運用을 목표로 하는 처방들로 바뀌게 된다³¹⁾.

2) 藳亂에 대한 『東醫壽世保元』 甲午本과 辛丑本의 비교

辛丑本에서 藳亂關格之病의 편제가 少陰病 뒷 부분에서 太陰病과 少陰病 사이로 바뀌면서도, 甲午本의 임상례들로, 개조없이 제시하여, 臨床證狀이나 사용 藥方도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辛丑本에서는 乾藳亂關格之病의 편제 변화를 통해 太陰病에 더욱 가깝게 배속시키고 있으나, 사용 처방으로 少陰病 處方으로 생각할 수 있는 桂附藳陳理中湯加味方³²⁾과 太陰病 重證 處方으로 생각할 수 있는 獨蓼湯加味方³³⁾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방사용에서 실제 桂附藳陳理中湯은 甲午本에서는 結胸, 黃疸, 少陰病, 乾藳亂關格之病, 下利清水, 臍厥 등에 제시되나, 辛丑本에 오면서 乾藳亂關格之病 및 少陰人 泛論에만 등장하며, 그 외의 사용례는 삭제되었다. 辛丑本 少陰人 泛論은 少陰人 藏結病에 관한 내용 3조를 빼고는 甲午本 少陰人 泛論과 동일한 것을 생각해 볼 때, 辛丑本에 오면서 桂附藳陳理中湯의 사용은 거의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桂附藳陳理中湯과 芎歸 葱蘇理中湯 등의 사용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官桂附子理中湯의 사용³⁴⁾으로 요약된다. 獨蓼湯加味方은 辛丑本 少陰人新定方에 제시된 人蓼陳皮湯의 母方인데, 人蓼陳皮湯의 처방설명에 溫胃逐冷之力이 있다고 하여 太陰證 重證에 사용되는 처방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는 辛丑本에 오면서 藳亂 病證 및 약방 사용에 대한 東武 李濟馬의 인식에 변화가 있

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辛丑本에서 藳亂關格病이후 下利清水病이 생길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런 경우 下利清水가 발하기 전에 먼저 巴豆를 사용하여 積滯痙冷을 제거했어야 한다고 제시한다³⁵⁾. 그리고 下利清水病에 便閉가 생기면 巴豆를 급히 사용한 후 薑朮寬中湯을 사용함을 제시³⁶⁾하는데 이는 少陰病의 운운과 다소 차이가 난다. 또한 乾藳亂關格之病에 巴豆如意丹을 먼저 사용 후에 溫胃和解之藥을 사용함을 제시한다³⁷⁾. 이는 필요시 巴豆의 사용으로 積滯를 제거하는 것이 少陰病과 太陰病에 있어 모두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辛丑本은 藳亂病을 太陰病의 重證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藳亂關格 이후 下利清水증상이 발하여 少陰病 處方(附子理中湯)을 사용하였다³⁸⁾는 임상례에서 乾藳亂關格病은 太陰病 重證이지만, 초기에 巴豆를 사용하지 않고 치료가 미흡하여 積滯痙冷으로 인해 保命之主의 손상이 점점 커지게 되면, 보다 강력한 裏陰降氣를 위해 少陰病 處方에 가까운 약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藳亂에 있어서 乾藳亂, 濕藳亂의 구분하지 않고, 증상과 保命之主의 상태에 따라 太陰病, 少陰病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치험례는 太陰病과 少陰病의 관련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향후 甲午本과 辛丑本의 병증인식변화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IV. 結 論

東武 李濟馬의 『東武遺稿』 및 『東醫壽世保元』 草本卷의 초기 저서에는 少陰人 藳亂에 대한 처방은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病證 체계에 대한

31) 이재원, 송일병,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李濟馬의 四象醫學觀에 관한 비교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2):75-94.
 32) 桂附藳陳理中湯은 官桂附子理中湯에 藳香, 砂仁을 가한 처방.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卷之二 新定少陰人病應用要藥二十二方』 참조.
 33) 獨蓼湯 加 生薑, 陳皮, 砂仁은 辛丑本 新定方인 人蓼陳皮湯으로 볼 수 있는데, 溫胃逐冷之力이 있다고 하여 太陰病에 사용할 수 있는 處方으로 생각할 수 있다.
 34)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少陰人胃受寒裡寒病論」: “少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官桂附子理中湯 健脾而降陰”

35)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少陰人胃受寒裡寒病論」: “以此觀之 則下利清水者 病人 有藳亂關格而後 成此證也 此證 當用巴豆 破積滯痙冷 自是無疑”
 36)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少陰人胃受寒裡寒病論」: “下利清水 仍爲便閉者 先用巴豆 後用薑朮寬中湯”
 37)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少陰人胃受寒裡寒病論」: “急用巴豆如意丹·此病 在窮村故 未暇溫胃和解之藥.”
 38)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少陰人胃受寒裡寒病論」: “急用附子理中湯 六貼 青水變爲黑水 又二貼 黑水泄瀉 亦愈 又二三貼調理”

서술은 없다. 그 후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辛丑本을 거치면서 四象人에 대한 병증인식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藶亂 병증의 인식변화는 단지 藶亂 뿐 아니라, 少陰人 裏病의 병증 인식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甲午本과 辛丑本の 病證認識變化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1. 『東武遺稿』 및 『東醫壽世保元』 草本卷에 나타난 藶亂病證은 濕藶亂과 乾藶亂으로 나뉘어서 서술되고 있으며 『東醫寶鑑』 등의 기존 한의학적 개념을 體質病證의으로 재해석하여 個別病證에 따른 치료정신이 나타난다. 그러나 치료처방에 있어서 질병별로 처방을 제시하는 식이라서 藶亂 病證 認識 및 治方에 있어서 기존 한의학적 개념이 여전히 관찰된다.

2. 甲午本 저술 당시에는 濕藶亂의 병증은 太陰病으로 흡수되어 진다고 볼 수 있으며, 乾藶亂은 直中陰經乾藶亂關格之病으로 요약되어 치험례를 통해 설명되어 진다. 하지만 아직 太陰病과 少陰病의 病證認識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乾藶亂關格病의 범주가 少陰病에 위치한다.

3. 辛丑本으로 오면서 直中陰經乾藶亂關格之病

은 少陰病에서 太陰病의 重證으로 편제가 변화하여 乾藶亂에 대한 病證認識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는 乾藶亂에 국한되지 않고 太陰病 少陰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乾藶亂의 임상례는 개조되지 않고 甲午本과 변화 없이 그대로 제시되어 구체적인 병증변화 고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V. 參考文獻

1.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개정증보 사상 의학. 집문당, 서울, 2004.
2. 이준희,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病證論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49-61.
3.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甲午本(舊本)과 辛丑本(印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62-73
4. 許浚.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1999.
5. 이제마저. 량병무, 차광석 번역. 東武遺稿(국역 한의학대계 15). 해동의학사, 서울, 1999.